



## 콘대인터뷰

#새겨들어  
#꿀팁이야

디자인 | 이승우

## 학교 선배가 해주는 솔직한 이야기

### Q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일본학부 일본학 전공 17학번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 Q공부하신 전공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지?

일본학 전공은 각 대학의 일문학과, 일본어 관련과와 비교를 했을 때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역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 Q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실감이 나시나요?

실감 하나도 안 나고 나 뭐 먹고살지... 이 생각만 나요. 저는 아직 응애인데, 갑자기 휴학하고 교환학생 갔다 왔더니 21학번이 있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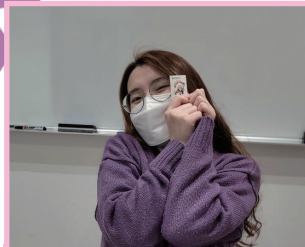
### Q대학생활 중 꼭 해봐야 하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2가지

#### 정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개 하세요. 하나만 하면 그 안에서의 관계가 뭔가 비뚤한 다? 이러면 그 관계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 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환학생! 학생 때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에서 직접 살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동아대 학비를 내면서 그 학교의 수업을 듣고 문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언어도 확실히 느니까 정말 추천합니다.

## "교환 꼭 가봐!"



17 이유정

중국일본학부  
일본학 전공

DEPARTMENT OF

### Q교양 중에 이걸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나 꿀 교양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꿀 교양을 추천해드릴게요. "행복한 결혼과 가족."을 추천합니다. 일단 패는패고,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청춘들의 연애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데이트를 한 과정을 피피티로 발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험도 간단해요!

### Q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 또는 일화가 있나요?

대학 와서 첫 수업이 필수 교양이었던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이었습니다. 그 과목 담당 교수님이었던 박찬형 교수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저를 되게 챙겨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동화책을 주기도 했답니다. 교수님과 관련된 일화를 말해보자면 수강 신청을 한 줄 알고 수업을 갔는데 알고 보니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조교님과 연결해 주셔서 신청을 무시하지 않게 됐답니다. 편의를 처음부터 봐주시고 1학년 1학기 첫 수업부터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 Q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없다면 새내기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혹은 포토존을 추천해주세요!

부민 캠퍼스 국제관 7층 도서관에 있는 물량이 소파. 꿀잠 자기 딱 좋습니다. 1학년 때 시험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만 자야지 했다가 밤에 눈을 떴던.. 경험이 있어요. "학생.. 지금 나가야 돼요.." 하고 직원분이 절 깨워줬답니다.

### Q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맛집은 무엇인가요?

1. 칼국수&수제 등심 돈가스. 칼국수가 3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 맛있고 주인분도 친절하십니다.
2. 김삿갓 돼지국밥. 위생도 깔끔하고 국물도 깔끔합니다. 최고의 국밥집!

### Q다시 20살,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나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해보고 싶은 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술자리를 몇 번이라도 더 가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학년 땐 통금이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 Q동아대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교환학생 제도가 참 잘 되어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매결연되어 있는 외국 학교도 많고 국제교류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특정 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를 통해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평생 지도 교수 제도입니다. 상극인 교수님이 붙어버리면 고역인데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과 차원에서 마음대로 바뀌지기도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입결이 제일 낮은 과로 들어와서 다른 인기과로 바꾸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2.0만 되면 자격이 주어지니까 가고 싶은 곳을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가는 수준?

### Q졸업을 앞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취업이죠.. 취업. 이 시국에 일본어를 하는 나를 써주는 곳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 Q대학 생활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교환가세요. 교환학생은 대학생일 때만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일반 유학과는 다른 교환학생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면 꼭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JAPANESE STUDIES

## "삼색 신호등"



14 김동현

화학공학과

## Q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14학번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 Q공부하신 전공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사전적으로는 화학업종에 대한 기구적이나 공정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공학 내용을 배우게 되거든요. 전문 기술을 기계공학과 내용을 화학이랑 접목시켜 배우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Q대학 생활 중에 꼭 해 봐야 하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2가지 정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교내 행사 같은 거는 꼭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전 같은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다 비슷해서 단순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했던 게 후회로 남았거든요.

## Q그렇다면 활동했거나 하시는 동아리가 있나요?

MAKE A WISH라고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활동인데 전세계에 재단이 있어요. 3-4명을 한 팀으로, 팀마다 한 명씩 위시킴즈라고 하는 난치병 아이들을 전담해요.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비대면으로 계속소통을 하고, 위시데이에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동아리예요!

## Q교양 중에 이젠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나 꿀 교양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교양인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과목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어 있잖아요. 이 과목을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본성,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성격 유형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있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 Q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 또는 일화가 있나요?

제가 새내기 때 일반생물을 들었어요. 그때 처제가 새내기 때 일반생물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조교수로 첫 강의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생명화학공학'이라는 수업을 하셔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장식하셨던 교수님이라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선배님의 시각으로 다가오셔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 Q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괜찮은 장소가 있다면?

공대 2호관 카페테리아라고 테라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당일 과제 이런 거 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입학했을 때는 뉴턴공원이 없었거든요. 원래 잔디 구장이었는데 그래서 생겼을 때 놀랐어요! 거기서 좀 사랑이 싹트면 좋지 않을까요.(웃음)

## Q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학교 맛집은?

새내기 때는 만족이랑 이모 식당! 이 두 개를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반이 맛있더라구요. 만족이랑 이모 식당은 지금도 맛있는데 새내기 때 그 가격이 아니라 아쉬워요.

## Q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나 후회하는 것은?

새내기 때는 결단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일이랑 학업이랑 동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업을 중단하던가 방송일을 잠깐 쉬었어야 했는데 대학생활을 처음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웃음) 만약 다시 돌아가면 어디에 집중을 할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Q대학생활 동안 느낀 동아대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동아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더라구요. 근데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동아대의 이름이 낮아져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좋은 점은 수강 신청이 선착순이 아니라서 좋아요! 제가 신입생 때는 선착순이라 동기들이랑 피시방에 갔었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도 많고, 동아리 활성화가 잘 되어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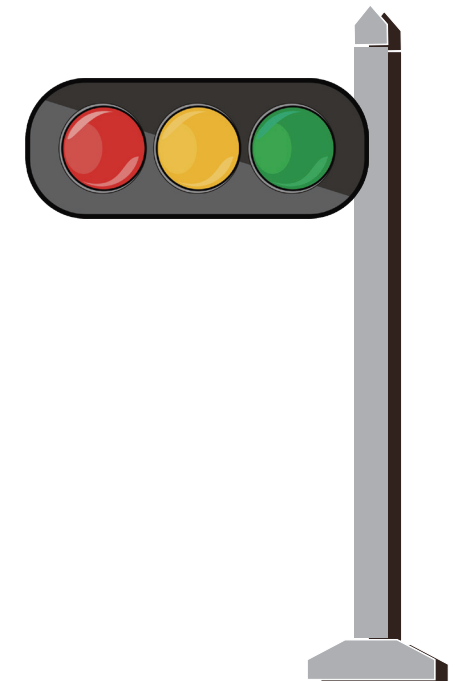
## Q졸업을 앞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남들처럼 취업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곳에서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기업과 연봉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학교생활에 집중을 못했지만.. 취업 걱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졸업을 하고 일과 취미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Q마지막으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삼색 신호등? 일단 신호등이 있는데 그걸 건널지 말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빨간 신호등을 건너면 위험이 있고, 초록색에 건너면 안전하고, 노란색일 때 건너면 반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생활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아요. 전공 과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면 분명히 자기가 뭘 좋아하고 특화되어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 "꿈을 찾아라"

### Q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상헌입니다.

### Q전공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제 주전공은 정치외교학과이고 부전공은 행정학과입니다. 정치학은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이들 간의 파워게임 분석,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트럼프, 바이든, 시진핑 정부 등 다양한 국가의 정치 형태, 어떤 국가 간 관계를 가지는지 등등 외교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행정학은 다들 아시듯이 공무원이죠. 정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부 활동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와 행정법에 관련해서 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정치외교학과  
4학년

### Q꼭 해봐야 하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2가지 정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1,2학년 때 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들어라."입니다. 경제학 원론, 사회학 개론 등 이런 교양들의 과목 이름만 들었을 땐 딱딱해 보이지만 매우 추천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교양을 많이 듣다보면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진로도 확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학년 1학기 때 너무 놀지 마라. 학점을 4.0을 받아라."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쪽 학점을 4.0 이상을 받으면 조기졸업자 신청 조건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수강신청 규칙이 주 전공이 1순위, 복수 전공이 2순위라서 복수 전공이 확실히 자리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졸업자가 되면 수강신청을 떨어질 일이 없답니다.

### Q교양 중에 이젠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나 꿀 교양이 있다면 추천한다면?

문과 쪽 꿀 교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쓰리 테크 꿀 교양'!! '내가 문과지만 수학 좀 했다. 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경영 수학, 경제 수학, 경제 경영 수학을 들어보세요. 살짝 속임수 같지만.. 교수님도 같고 책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플을 연속 3번 받을 수 있는 기회!

### Q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 또는 일화가 있나요?

경영대 교수님인 신봉준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서 말했던 경영 수학, 경제 경영 수학 교양에서 만난 교수님인데, 교수님도 저한테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저녁도 같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추억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간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이 보통 6시부터 시작하니까 수업 마치고 '참미담'에서 밀면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같이 봤던 야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라 진로 얘기도 하고 통계 얘기도 하면서 진로를 리서치 쪽으로 확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라 친하게 지내는 걸 추천합니다. 접근이 어렵긴 하지만..

도 하면서 진로를 리서치 쪽으로 확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라 친하게 지내는 걸 추천합니다. 접근이 어렵긴 하지만..

닌다는 게 좀 화가 났어요. 학교가 지원을 학과마다 고르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학과별로 지원정책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고르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Q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학교 맛집은?

더울 때는 참미담 밀면집, 추울 때는 18번 완당집을 추천합니다. 18번 완당집은 백종원 님도 왔던 곳이에요. 신입생들은 꼭 가보시길!

### Q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나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지금 26살인데,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바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꿈인 로스쿨은 학점이 중요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집-도서관-집이었습니다. 3-4학년 때는 집-도서관-집이 맞는데, 아마 1,2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동아리를 두세 개 정도 하고 학교 동기들이랑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대학교가 뭔가를 배우는 것도 맞지만 인프라, 나쁘게 말하면 인맥.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시즌이 됐을 때, 힘들 때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Q졸업을 앞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중에서도 '이 길이 맞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전공과 직결되는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정보도 많이 못 듣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해야 해서 지금 6전공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 Q4년간의 대학 생활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꿈을 찾아라." 1, 2학년 때는 꿈을 찾는 과정이 핵심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3, 4학년 때는 대기만성. 충분히 쌓고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끈대스럽긴 하지만(웃음) 인터뷰 주제가 끈대 인터뷰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Q동아대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 2016년 대면 수업 때는 수업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타과 강의를 과 상관없이, 무조건 듣는 것과 전자 출결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 다른 사립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데코 LINC+ 시스템이 너무 경영대에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학비 내고 다니는데 누구는 선도대학 학과 대상이라서 학교 이름으로, 학교 지원으로 방학때 학점 받으면서 실습을 다

## "후회는 없다"



18 이호승

기계공학과

### Q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호승입니다.

### Q전공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사람을 대신하여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필요한 일들을 기계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에 관한 지식과 실습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계와 기계를 이용한 다양한 설비나 장치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 Q꼭 해봐야 하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2가지 정도 추천한다면?

처음으로는 CC입니다! 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함과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수업과 학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윈윈되어 좋은 것 같아요. 아 물론 CC는 과 CC보다는 학교 사람으로 만나는 걸 추천해요(웃음)

두 번째는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가 좀 조용해진다면 해외여행으로 글로벌 시대에 따라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 Q교양 중에 이걸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나 꿀 교양이 있다면 추천한다면?

좀 유명한 수업인데 "행복한 가정과 결혼"이라고 전 공수업에서는 배우기 힘든 남녀의 문제들과 이해관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받기 쉽거나 이런 건 아닌데 수업이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이성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과제도 있었답니다.

### Q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괜찮은 장소가 있다면?

뉴턴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해요. 날씨가 좋은 날에 앉아서 놀고 있으면 '아 이게 대학생활이구나'하고 느껴져서 좋아요.

### Q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학교 맛집은?

해월관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중화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가서 먹지는 않고 주로 배달로 시켜 먹어요! 가서 먹는 식당은 잘 모르겠고.. 술집은 안주제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제일에서 따와서 안주가 제일이라고(웃음) 거기에서 떠먹는 피자가 색다른데 맛있어요!

### Q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거나 후회하는 것이 있을까요?

해보고 싶었던 게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 동기들과 나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같이 어울려 놀고 싶어요.

### Q동아대의 좋은점과 아쉬운점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사립대학교보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지원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학회나 동아리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코로나가 겹쳐서 학교에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동아리를 즐기지 못해 아쉬워요.

### Q졸업을 앞둔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취업 걱정과 새내기 때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건문을 넓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졸업을 앞둔 시기에는 누구나 취업 걱정이 일 번 일 듯합니다. 제 기준에서 후회되는 것은 새내기 때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 Q학생회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후배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저는 동아리 활동은 한 적은 없고, 학생회 활동만 해왔어요. 과, 공대, 지금은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회 활동은 사실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하면서 학생들과 더 많은 교류 기회가 있고, 책임감 등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려요!



### Q마지막으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후회는 없다. 코로나 때문에 못 즐긴 거는 있어도 누구보다 재밌게 학교생활을 한 것 같아서 후회는 많이 없어요.